

교 회 목 표

신앙만 예배
전국 일동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니라
(빌립보서 1:21)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김성관 목사 설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선물

“...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29-33)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

“제자들이 불하되 지금은 바빠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나 우리가 지금
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지 않는 줄 아니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29-30절). 이 구절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
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요 16:17-18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 있기 전,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의문을 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토론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께
묻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납득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마치 책을 펴서 들어
다 보듯이 그들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
로 이러한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사
실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30절). 예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요 11:4), 또 다른 이들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통찰력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사 139:7).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지
식을 가지셨으며,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다는 것을 통해 그가 참으로 하나님
의 아들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시는 예수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점차 벌어질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저버리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즉, 비록 그들이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곧 깨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절은 보잘 것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고 계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과 자신을 저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한 면들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참으로 필요로 하실 때, 도망가 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 자체로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록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뢰하
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심성 속에 숨어 있는 악한 성품들을 잘 알고 계
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용서할 수는 있으나
배신한 자를 다시 신뢰하기 힘든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용서
하고 변함없이 신뢰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용서하시고 신뢰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
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
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예수의 제자
들은 스승을 버릴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에 참된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렸을 때, 그들을 비난하지 않
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후에도 그의 제자들을 회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제자들
을 그들 자체로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을 우리가 어
떤 사랑을 우상화하고나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생각한다면 곧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조건이 사랑하려는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

이러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사 55)로 인하여 마침내 그들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
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31절)라는 반응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너
희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라는 말입
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느냐? 이렇게 예수께
서는 요 16:29-33을 통해 그가 어떻게 제자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실패할 것이
며, 그리고 그가 어떻게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 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
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32절). 예수께서
는 그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그의 제자들과 천구로서의 기쁨을 나누어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동안에는 도망친 제자들로 인
하여 고독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홀로” 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
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인간은 의의 편에 설 수 없습니
다. 그러나 감격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의의 편에 서십니다. 이 세
상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한두 번씩은
버림받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자비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향하여 동정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안
에 긍휼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
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33절).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의 약한 본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딪치게 될 충격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저지르게 될 실수가 그들을 향한 사랑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그의 사랑을 결코
변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여 절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실패해도 낙심시키는 어떤 일
을 행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의 승리는 제자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심으로 그의 자비와 용서를 정의 내리셨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죄가 어
떻게 자신을 상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그들이 상
처 입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자신을 상하게
하는가를 깨닫고, 어떻게 그 죄들이 우리를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찬 쓰라린 마음으로
물고 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예수

예수 안에는 이러한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매순간 직면하는 것들에
대해 담대해지도록 용기를 주며, 삶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예수께 가장 악한 것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를 패배
시키지 못함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승리는 제자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근
센는 그를 패배시키기 위한 가장 악한 것을 저지를 것이지만, 예수는 승리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다보면 정신도 생명을 빼앗기는 가장 불행한 경우를 당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당신 역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를 통
하여 압도적으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
이나 깊음이 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
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아멘!

참사랑의 근원인 예수께 향하여

사랑하는 중원의 가족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
도로 믿어야만 우리가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은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
점을 가진 자들이므로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겐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선물은 그 어떤 가장 가치 있는 보석보다도 귀
한 것이므로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측정할 수 없는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가 이러한 선
물을 얻거나 살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은 은
혜이며, 그 은혜는 믿음 외에 어떤 다른 형태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곳, 그의 십자가로 발걸음을 향하는 자들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ㄴ

Sermon of pastor Kim



Christ & His Gift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John 16:29-33)*

"His disciples said, 'Lord, now You are speaking plainly and are not using a figure of speech. Now we know that You know all things, and have no need for anyone to question You: by this we believe that You came from God' (vv. 29-30). The beginning of this passage reveals the disciples' knowledge of Jesus' deity. Just prior to this conversation, the disciples were questioning the meaning of some of Jesus' words (see vv. 17-18). They weren't talking to Jesus but among each other. They couldn't discern what He was speaking about, and deep inside they really wanted to question Him. Jesus knew of their dilemma; He could read their hearts like open books. That's why they believed Him. To some Jesus was able to show God's glory, and to others He was able to show them their hearts. He could do both. It was His knowledge of God and the human heart that convinced the disciples that He was, indeed, the Son of God.

It's here, in today's message, that Christ communicates as a realist. He tells His disciples that in spite of their belief, they would desert Him. Even though they now believed, they would soon break faith. Their loyalty was shallow. Jesus knew all this; He knew everything. God gave the disciples the truth, and He also gave them knowledge of the truth. As the Son of God, Jesus knew His disciples were not perfect, and that they would forsake Him. He knew their weak points. He knew they would fail. Whenever He truly needed them, they would not be there. And yet, He loved them as they were. Moreover, He believed in them, even though they would betray Him. Jesus knows the evil things of humans, yet He loves them endlessly.

Unlike humans, who can forgive but find it difficult to trust again, Jesus can forgive and believe. Jesus knew that His disciples would desert Him, but He still loved them. He knew that they were going to experience victory! That's why He tells them ahead of time that they will first forsake Him but He will still love them. That's why He responds to their statement of belief with, "Do you now believe?" (v. 31). That's why He tells them to be brave because they will receive victory. In this world, forgiveness and trust don't go hand-in-hand. In Jesus, this happens! Forgiveness and trust are unified. Jesus shows us, here in John 16:29-33, how He forgives us, how we fail, and how He still believes in us.

First of all, Jesus tells His disciples, "Behold, an hour is coming, and has already come, for you to be scattered, each to his own home, and to leave Me alone; and yet I am not alone, because the Father is with Me" (v. 32). Jesus would not have the pleasure of the company of His disciples when the time would be most helpful. He would be lonesome without them during His suffering, but He would not "be alone." God the Father would always be with Him. Truly, humans can't stand for righteousness, but thankfully God stands for us in righteousness. There's not one good man upon the face of this earth. Everyone, at one time or another, will be forsaken by another human being, but man will never be forsaken by God.

Even though Jesus' disciples would forsake Him, He would forgive them. There is forgiveness in Jesus. When His friends abandoned Him, He did not upbraid them. After His resurrection, He did not go against them. He loved them as they were. Love must be clear sighted. If we idolize a person and think he/she faultless, we are doomed to disappointment. We must love them as they really are. Amen!

Jesus displays sympathy toward the weak and imperfect. There is compassion in Jesus.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 (v. 33). Jesus saw His disciples' sinful nature. He prepared them for the shock that their disloyalty would cause them. He reassured them that their wrong doings would not effect His love for them. Their unfavorable actions would not make a difference toward His love. When they would think about their sins afterward, Jesus didn't want them to despair. He tells them now, before they actually do anything disheartening, to make them ready afterward. In so doing, He defines His mercy and forgiveness. Jesus doesn't think about how His disciples sin will hurt Him, but rather how it will hurt them! Sometimes it makes all the difference when we realize how much our sins hurt us, and how they drive us to regret and a sorrowful aching heart.

There is such a wonderful gift in Jesus. His love provides the courage to face each day and the power to conquer each day's dilemmas. Very soon, something was going to be unanswerably proved to His disciples. They were going to see that the world could do its worst to Jesus, and still not defeat Him. His victory would be their victory. The world would do its worst to Him, and He would emerge victorious. Life can do its worst to you, and you, too, can emerge victorious! We overwhelming conquer through Him who loved us,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ed thing,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3:38-29). Amen! You, too, can possess courage and conquest of the cros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My beloved Choong Hyun family, Jesus loves us. He knows each one of us so intimately. Through Him our strengths increase and our weaknesses decrease. Human frailty is caused by sin and Jesus knows this. He loves us as we are, despite our flaws. His gift of life, which He offers freely to all who believe in Him, is priceless—beyond the most valuable of treasures. There's no other gift, above or below heaven, like the gift of Christ. No one can earn it or buy it, though many try, because grace doesn't come in any other form but through faith. And all can find it down at the cross, where our Savior died. 🕊

그리스도의 향기 (고후 2:14-17)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부딪힌 상황들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압박이 있었습니 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승리를 이룩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함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타나기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본문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들을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많은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공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은 가문이나 그가 가진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교양도 아니었습니다. 듣는 사람의 귀에 즐거운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충헌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의 복음의 도구로써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충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가지 종류의 향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에게 좋은 향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 향기는 살림의 소식으로 사랑을 선포하는 냄새가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승리의 냄새가 됩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는 구원 얻는 자도 있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소개하기도 하고 죽음을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사도 바울은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16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향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복음은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되어 심판 날에 핏계치 못하게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값을 대속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절한 사람들에게나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달콤한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의 명예, 부귀, 권력도 얻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십자가

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으로 증거했습니다(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는 거짓 교사들이나 과도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장사꾼처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나 장사꾼들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을 섞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듣는 사람의 귀에 즐거운 소리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진정으로 증거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빛진자들이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할 때에 주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복음 증거자는 뛰어난 지식이나 교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리스도 그 은혜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만 증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난 나의 구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증거해야 합니다. 어쨌든 말투로 증거해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에 성경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꾀와 겉을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 4:12).

오직 주님의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낼 때 말씀을 통한 성경의 역사하심으로 그 향기는 승리의 소식과 심판의 소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복음의 빛진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복음을 헬라어이나 아람이나 지혜라는 자나 여러 식은 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라고 증거합니다.

“오직 성경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님에 감사하고, 열방을 향해 나가도록 부르심에 감격하여 성경 인도하는 대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만 믿고 나아갑시다.

(김말자 전도사)

하나님의 아들

우즈베크에 있을 때 나는 무슬림이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무슬림 기도를 했었다. 무슬림 기도는 힘들었다. 기도는 계속 했지만 다른 무언가 내게 찾아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그래서 내겐 종교도 가 보았다. 훗날을 끼쳐 놓고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그 곳도 내가 찾던 그 무언가는 없었다. 그 당시 우즈베크에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예수에 대해 잠깐 들어는 봤지만 교회에 다니는 법은 못 내었다. 무슬림인 가족과 친구들이 허락할 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즈베크에서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2000년 1월에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여자가 하는 안 되는, 좋지 않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장도 있었고,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도 있었다. 남편은 힘들다면서 자꾸만 술을 많이 먹으라는 음성과 죽으라는 음성을 듣는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계속 무언가 절대자를 찾고 싶었다. 그것이 무슬림은 아닌 듯 했다. 그 이상의 무엇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러던 중, 다니던 회사의 한 사람이 외국인들보다 다니는 큰 교회가 있으니 가 보라고 했다. 그러나 그곳도 유일신을 섬긴다는 말에 ‘무슬림과 기독교가 같은 신을 섬기는데 왜 나뉘었지?’ 하는 의문을 가지며 교회 가는 것을 잠시 미루었다. 그러다가 회사가 망하고 할 일이 없어 고민하다가, 큰 교회가 있다는 말이 기억나 충헌 교회로 왔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에 대해 들었다. 나는 예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이 내가 찾던 분이야’ 하고 확신했다. 그

리나 남편이 말렸다. 남편이 나보다 미쳤다고 하면서 우즈베크로 돌아가라고 했다. 나는 남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계속 전했지만 남편과 나는 결국 떨어져 살게 됐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 이상한 음성을 듣는다며 불안해하고 나는 아주 평안해졌다. 그러나 남편과 떨어져 있는 것은 좋지 않았다. 교회 친구의 권유로 남편과 다시 합쳤다. 다행히도 남편이 많이 자기기도에 교회에 다니고 싶어했다. 그러고 나서는 교회 사람들이 좋더라 자기기도 교회 사람들처럼 평온해지고 싶다고 했다. 예수를 아는 진정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교회를 부정하지 않으니 다행이었다.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접되니까 지냈다. 내가 참여하는 기도모임이 있는데, 남편도 피라다에 한번 오셔서 가족에 대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셨더라 기도모임도 왔다. 그 뒤로는 술도 끊었다.

가장 크게 주님께 감사한 것은 가족들의 구원이다. ‘나중에 우즈베크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핍박할 텐데 어찌지?’하고 고민하며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던 중,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다’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단기선교회는 온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변화된 것이다.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구세주시다.



골노자 (외국인 선교부 CISM)

◆ 다음 주 출발하는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일 자
7교구 2지역	표왕철	불가리아	5월 26일(월)~6월 5일(목)
13교구 6지역	강진택	불가리아	5월 26일(월)~6월 5일(목)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일 자
11교구 1지역	김인술	스리랑카	5월 19일(월)~5월 29일(목)
16교구 5지역	안성영	스리랑카	5월 19일(월)~5월 29일(목)
12교구 6지역	이성섭	우크라이나	5월 21일(수)~5월 30일(금)

◆ 이번 주도착한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일 자
2교구 5지역	이상해	네팔	5월 5일(월)~5월 17일(토)
1교구 8지역	이부성	몰도바	5월 7일(수)~5월 17일(토)
4교구 3지역	신광철	스리랑카	5월 7일(수)~5월 17일(토)
14교구 4지역	김동욱	몽골	5월 9일(금)~5월 19일(월)
10교구 2지역	김경환	우즈베키스탄	5월 13일(화)~5월 24일(토)
2교구 1지역	김영달	몰도바	5월 14일(수)~5월 24일(토)

스리랑카를 다녀와서

김 순 (권사, 5교구)

주님의 은혜로 10박 11일 간,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안절환이 있어서 의사가 만류했던 터라 식구들이 우려했었습니다. 저도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눈은 스리랑카를 다녀온 뒤 오히려 안과 의사가 놀랄 정도로 많이 낫았습니다.

저희 팀은 어린 마흔 '넬롬부'에서 첫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박한 천주교 신자의 심한 반발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뢰하 기도함으로 팀의 영적 무장을 다시 하고, 다음 사역지로 옮겼습니다. 구레네갈라에서 캔도로 이이지는 전도 여정의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예비한 많은 심령들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에 감복하여 찬송했습니다. 마지막 귀국하기 1시간 남짓한 시간까지도 한 불교 신자의 온 가족을 모두 주님께 영접하게 하였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저희 자신들이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스리랑카 선교에서 느꼈던 새로운 사실은 스리랑카 국민들이 정말 순수하고 정직한 국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주님께 크게 쓰일 것이라는 것과 우리나라 국민은 얼마나 순수하지 못한가 하고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팀의 복귀 여정은 스리랑카-싱가포르-한국이었는데 요즈음 전 세계를 들끓게 하는 '사스' 두 주의 군대 앞에는 한달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은혜롭고 기쁘게 전 일정을 마치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가라하면 가고 (눅9:8)

윤 병 식 (집사, 7교구)



방글라데시를 떠나기 전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라하면 가고, 오라하면 오며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여 믿음의 말씀만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하 필요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수해 지역으로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를 나가기 위해서 숙소에서 약 3시간 정도 자를 타다 뱃다 강변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가는 길은 강둑이 없어서 강물이 도로를 침식하고 있어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가라하면 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를 아십니까? 조금은 두려웠지만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무사히 살리뿌르(빈민촌)에 도착하여 통통배를 타고 25분 정도 강을 건너 선교지에 갔습니다. 배 안에서 그곳을 배 때는 분명히 사람들이었다 갔다 했는데, 도착해 보니 아무도 없고 절들은 뒤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한 '이삭'을 먼저 보내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곳은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도 지원이 불가능하여 포기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는 영적으로 너희들을 잡아서 너희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어 주려고 왔노라"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적 만족보다는 육적인 만족(배고픔에서 해방)을 더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1다카(Dha Ka)가 우리나라 돈으로 21원, 하루에 최소한 5다카만 있으면 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돈이 없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정말 참혹한 현실 앞에서 나의 입에서는 "주여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친절하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나무 그늘에 앉게 하고 자기들은 땀방에 서서 들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정씩 방문해서 "저수 그리스도께 빚사유 고분(예수 믿으세요)", "코다 아버지께 발로바센(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그들처럼 전할 때 "Diled Chan D Sil" 한 형제는 주님을 영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이 내가 밭과 자고 깨고 있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썩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니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막 4:26-29) 씨 뿌리는 곳이나, 추수하는 곳이나 때가 되어 주님께서 가라하면 말씀을 붙잡고 또 갈 것입니다.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2년 동안 외신부 내 CIS팀장으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CIS팀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참 많은 일들을 있었고, 그 일들이 나의 믿음 생활에 많은 간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받아들이던 모습들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심방 사역을 통해 믿음 안에서 많은 교제도 나 있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유달리 정도 많고, 따뜻해 심방을 할 때면 늘 편지를 많이 받고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아, 몸은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항상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도 지어주었고, 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때 만났던 사람들을 대다수가 귀국해서 사마르칸트의 한 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주로 우리 교회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아잠이저씨는 온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그 가족이 그 마을의 믿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올해도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대도 많이 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을 만나는 듯한 기분입니다. 축호 전도와 심방 사역을 통해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격려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올 해에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감당할 것입니다. 8월에 출발할 예정이라서 시간이 좀 있지만 팀 구성이 빨리 확정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팀 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린이 사역을 위해 우즈베키어와 러시아어를 같이 배울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김철한
11교구 4지역장

기도제목

1. 팀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2. 팀이 빨리 구성될 수 있게 하소서.
3. 눈물로써 회개하고, 서로를 돌아봄으로 팀이 하나될 수 있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조 수 진 (핸드벨 연주대)

5부예배 때 핸드벨 연주를 보면서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부에서 핸드벨 연주대에서 봉사하는 언니를 만났고 그 언니의 권유로 핸드벨을 시작했습니다. 핸드벨을 시작하면서 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의 말씀도 사모하게 되었고, 정말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벨 선배님들의 헌신된 모습을 보면서 헌신을 배우게 되었구요.

저는 예배란 주님과 만나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때때로 예배를 드리면서 약해지곤 하는 저의 모습을 다시 가다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저의 모습을 생각하곤 합니다. 예배 중에서도 특히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대의 찬양에 크게 감동받습니다. 핸드벨 연주대에서 찬양대 가까이에서 찬양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찬양을 들으며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물론 목사님들의 말씀 속에서도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부족한 죄인인 저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감동 받고 감사합니다.

예배에 헌신하기로 했지만 때때로 게을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교만해졌다고 느낄 때 정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저도 가까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항상 저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해 주시고 저를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한없는 사랑

김 유 림 (핸드벨 연주대)

처음에는 친구가 한 번 가져다 해서 핸드벨 연주대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핸드벨의 소리가 아름다워서 한 번 배워 보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핸드벨 연주대석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빠, 언니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며 주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보다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죄를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보살피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을 노래로 표현하고 아름다운 소리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장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이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전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내가 멋져 보이기 위해 하는 단순한 연주로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필요한가 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모보다 더 친 분입니다. 부모님도 사랑을 베푸는 데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기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과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의 영광을 변형시키고 변질시킨다. 그것은 말씀을 인간의 생각의 틀에 가두고 인간의 지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은 교육과 세상에서 쌓은 지식들을 그대로 성경을 분해하려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 죄와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맞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주부터 본 단 '오직 말씀으로'에서는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

찬양을 통해 주를 경험하자

송 제 월 (핸드벨 연주대 지휘자)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전에는 교회의 예배시간이나, 행사시간을 알리기 위하여 교회의 뒤 밖에 벨을 걸어놓고 단순한 음으로 연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타워벨을 연습용으로 개발하여 이 벨에 손잡이를 달아 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핸드벨의 시초입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벨의 크기와 음계가 다양하게 제작되었고 그 숫자도 늘어나 찬송가, 성가, 클래식, 제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연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 소속의 대전을 악부를 담당하던 마대열 선교사가 대전에 핸드벨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처음 탄생한 대전 핸드벨 콰이어는 학생,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20년 동안 교회, 학교, 군부대, 방송국,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음악 선교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tjhandbell.com 자료 참조)

핸드벨 연주대는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합니다. 대원들 모두가 이 마음을 품고 핸드벨을 통해서 주를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발

김 아 슬 (대학부)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봤을 때는 마음이 더욱 더 요동쳤습니다. 국내 전도만 했던 세계 선교보고는 막연했지만 저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를 통해 단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계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불교가 대부분이었던 스리랑카 사람들은 정말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지만 불교를 믿고 있다는 이유로 멀리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식층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미리미리만 많은 것을 알고 있었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전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말은 제가 했지만 선교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의 힘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나 일대 일로 만나면서 말씀을 전할 때나 영혼에게 다가가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움츠리지 않을 것 같았던 스리랑카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곳 저곳에서 움직임을 보여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충현의 단기선교 팀들이 스리랑카를 품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다니는 후,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지한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교만하게 예수님을 믿어 왔던 저의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어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깨어,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음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집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참고로 하여 말씀을 정확히 정리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인해 잘못 이해하기 쉬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살펴볼 것이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평가하려는 불확실한 실험을 이제는 정말 그만두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허락하신 것만을 붙잡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자.

(권요섭)

말씀을 가두는 인간의 생각의 틀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1. 특별히 사모하는 찬송과 그 찬송에서 받는 은혜를 말씀해 주세요.

요즈음 특히 사모하는 찬송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어려운 때이라도 인내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 어떤 신상생활 하든지 말씀해 주세요.

신상생활 중에도 하나님께 하신 일에 대한 의심이 마음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유학생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죄인이며 십자가의 공로로 살게 되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조금씩 알아가면서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시편 23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믿음의 길을 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3.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든지 말씀해 주세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5). 죄인인 제가 설 수 없는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제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야, 음악만을 하는 올리는 행락리가 아닌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4. 기도제목들 말씀해 주세요.

찬양을 통해서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늘 그리스도의 중언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연혜원 기자)

김남옥 집사

금요 찬양 예배 반주자



다음 주일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은 미국의 찬송가 작가인 윌 라마틴 톰프슨(Will Lamartine Thompson, 1847-1909)이 작시, 작곡한 찬송가로 예배서 1장 7절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는 말씀에 근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삶의 험경 속에서 낙심하고 슬픔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위로와 참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천국까지 동행해 주시는 본임을 찬송하고 있다.

- 1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령 되시니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입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 이 주 예수
 2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3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 하겠네
 주아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현업은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령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양위원회)

새 · 족 · 을 · 한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19	신남희	1 청년1부	김민주(1)	620	박영록	7 청년1부	김인철(7)	641	유성희	13 청년2부	남은희(10)
620	김숙영	1 청년2부	정철원(1)	631	류규정	7 청년1부	김해나(17)	642	조광현	14 청년1부	최경선(1)
621	이종일	1 청년2부	정철원(1)	632	정영록	7 청년1부	김재남(17)	643	안영진	7 청년2부	한관희(17)
622	이기쁨	1 중등3부	정철원(1)	633	이복자	8 청년1부		644	박진미	9 대학부	최효일(15)
623	최민정	1 대학부		634	김준형	8 청년1부		645	이금성	9 청년2부	
624	양종희	2 청년2부	유익연(2)	635	홍호준	8 청년2부	오준원(8)	646	이은경	9 청년1부	
625	김영웅	1 청년2부	김기복(6)	636	한승호	8 청년2부	공경자(8)	647	김진우	9 청년1부	
626	최경규	1 청년2부	김기복(6)	637	김진희	8 청년2부		648	최숙희	9 청년1부	최수경(16)
627	김민비	1 청년2부	김기복(6)	638	최영석	8 청년2부		649	박재용	9 청년1부	김세영(14)
628	이진영	1 청년2부	김기복(6)	639	변바현	9 청년2부	서지희(17)	650	윤기훈	9 대학부	강두영(2)
629	김민지	3 대학부	김미우(194)	640	김동주	10 청년2부	최광현(7)				

* 총신교회외의 한 가지기회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찬양오실

1교구 역삼 4구역 원상연 성도

김은자 집사의 남편으로 폐 안에 염증이 생겨 수술했으며,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처음 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빠른 쾌유와 병석에 있는 동안 주님과 더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7교구 은행구역 김정임 집사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자가에서 투병중입니다. 이제 전투가 시작되었으며, 위암이라 음식을 잘 넘기지 못합니다. 주님제사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고통을 이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시골에 있는 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김정임 집사에게 복음을 전할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7교구 관서구역 김정원 집사의 모친, 김필연 권사(77세)

김필연 권사는 아산병원에서 심장수술 후 뇌경색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십자가



6. 어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闡明)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갈 6:14).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바울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 것일까? 나는 오랜 시간 십자가를 묵상한 후에야 사도 바울의 심정(心情)을 헤아려 볼 수 있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바라보면 마라불수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는 온 우주에서 가장 사랑스러우시며 아름다우신 분으로 다가왔다. 외견(外見)상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으신 분이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라불수록, 그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우시며 존귀하신 분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만이 인생의 참 보람이요 가치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이 내 마음에 사무치게 느껴졌다. 십자가에서 참으로 저주를 받은 것은 이 세상이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내 마음에 강렬하게 전달되면서 내게는 깊은 회한(悔恨)과 새로운 결심이 밀려들었다. '어찌하여 이처럼 사랑스러우신 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지 않았단 말인가? 라는 회한과 '아,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세상을 내가 어찌 사랑할 수 있으리요?'라는 결심이었다. 이처럼 십자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들임을 내 마음에 각인시켜 주었고, 내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이 되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며 말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처럼 십자가를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또한 능히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십자가를 등한히 하고 열심만 내는 신앙은 한 없이 무력하지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준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처럼 귀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이태복 목사)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자의 믿음까지

지 정 민 (유아부 열매 10만 원혜언 엄마)

열마 전 딸 아이가 교회에서 열린 섬게방을 주제로 한 성경 암송 대회에 참가했었다. 어린 고사리의 모습을 한 작은 꽃망울들이 병뚜껑겉임을 맞추어 한마음 한뜻으로 암송하는 장면을 보았다.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도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을 천국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귀한 작업을 하고 계셨다. 아마도 천국은, 이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믿음과 순종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한 회개의 눈물 속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종 된 애굽의 삶에서 우리 옛사람을 건지시고, 흰 옷 입은 새사람으로 가나안에 이르키까지 홍해와 광야를 건네 하시며, 믿음으로 요단 강을 건너게 하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제 다시는 욕에 속한 죄의 명에를 지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배워서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키까지 저 천국으로 빛의 자녀들을 인도하소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라" (고전 13:11).



주님의 포도밭에 선한 청지기

강 은 숙 (유아부 정현석 엄마)

줄넘 눈을 부시시 뜨며 "엄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하고 묻는 현석이. 주일이라는 나의 대답에 "그럼 나 오늘도 헌금 봉사 할래요"라며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작년 유아부 때의 현석을 생가합니다. 처음 유아부에 왔을 때는 유아부실이 자신의 안방인 것처럼 매우 회귀고 다나서 나를 당황하게 했었는데, 이제 헌금 봉사를 해야 한다며 주일 아침마다 나를 계속합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밝은 햇빛, 공기, 물 등 우리의 생명과 관여되는 값비싸고 소중한 선물들이 그 하나요, 우리의 거울이며 보석인 자녀가 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선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마치 포도밭의 선한 청지기들과 같이 주님께서 오셔서 소출을 받으려 하실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포도밭에 없어서는 안 되는 햇빛과 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야만 하듯이 우리 아이의 심령과 혈관도 주님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오로지 가지치며 벌레 잡아주는 일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가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 내 놓으라 하실 때 그것을 드러야 할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의 자녀를 보석으로 여기며 주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소중히 가꾸고 지키됩니다. 오늘 같은 주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 현석을 바라보며...'



첫 어린아이를

영아부 소망4반 조성민 엄마



드디어 어린아이를 아침이 밝았다. 지난 8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내 아들'의 어린아이를. 나도 이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어린아이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성민이의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 고민 했었다. 그리고 결론은 '출현 기도원'이었다. 지난 14년 간 엄마가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울라기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곳보다 적당한 곳은 없다고 생각했다. 온 식구가 엄마가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 모였다. "할머니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곳이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새삼스럽게 눈물이 나왔다. 결혼 7년 동안 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그런 나를 위해 그저 조용히 기도해 주셨던 엄마. 그 기도 덕분에 마음이 편안할 수 있었고 귀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가 나의 엄마라는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다. 그 곳에서 부른 찬송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성민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며 '나도 성민이에게 기도하는 엄마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기도원에서 보낸 어린아이를 그는 어느 놀이동산이나 동물원보다 즐겁고 행복했다. 우리 성민이의 첫 어린이날은 교통 혼잡도 없었고, 흥수처럼 밀려오는 많은 인파도, 바가지 요금도 없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한 귀한 날이었다. 이렇게 귀한 어린아이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려 주신 생명 잘 키울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해요."

믿음의 학교에서

솔로몬의 타락 (왕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왕상 11:1).

한 사람이 많은 여인을 사랑할 수는 없지요. '사랑하였으니(아하브)'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강한 애착이나 집착, 욕망에 근거한 성적 열정을 말합니다. 인간은 사랑과 집착을 구별하지 못하여, 그 대상을 소유하거나 그걸에 있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사랑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여호와께서...너희는 저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회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회가 정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회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2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 강 동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러주시는 말씀이요(신 7:3,4). 인간의 정욕과 명예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하고 결국은 말썽을 일으키게 합니다. 인간의 범이 하나님의 범 위에 있으니까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이한 결과, 그 여인들은 각자 자기 민족의 신(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숭배합니다. 솔로몬은 우상숭배를 허용했을 뿐 아니라 이방신들을 위해 산당까지 지어줍니다(7:8절). 솔로몬의 종교적 혼합주의(混合主義)는 이방과의 동맹을 튼튼하게 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우상숭배를 경고하시고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에 남북 왕국 멸망의 주된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솔로몬의 종교 혼합주의적 행위에 대해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9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의 마음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병역과 부의 축적, 그리고 사치와 다쳐 등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우상숭배에도 빠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노년에 여호와를 떠난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 우상숭배 등에 대해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 모든 것들을 깊이 깨닫고 신앙을 회복했을 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되, "인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전 12:13).

우리도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결국 솔로몬처럼 후회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8).

(권영희 기자)

